

# “기적의 놀이터 계속 생기니 행복해요”



3호 놀이터 '복합스페이스네트'



2호 놀이터 대표적인 10m 높이의 자이언트 스페이스 네트.

지난 24일 순천시 서면 강정수변공원을 찾은 아이들은 신이 났다. 그네, 시소, 미끄럼틀만 있는 여느 놀이터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놀이기구들이 가득차서다.

30m짜리 짚라인, 정글짐처럼 밧줄과 그물을 엮어 만든 그물 놀이터, 엄마·친구와도 함께 탈 수 있는 다인그네 등 '파격적' 놀이기구를 본 아이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순천시 서면 동산초와 강정어린이집 어린이 80명은 이날 순천시가 조성중인 제3호 기적의 놀이터를 미리 보고 체험해보기 위해 공원을 찾았다.

어린이 감리단은 놀이기구를 직접 타보며 “대박”, “너무 좋다”는 감탄사를 이구동성으로 내뱉었다.

놀이터를 휘젓고 다니며 놀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며 놀이기구별로 고쳤으면 하는 것들을 종이에 꼼꼼하게 기록하는가 하면, 함께 다니는 놀이터 총괄디자인인 편해문 작가에게 즉각 제안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이날 ‘영풍밭’ (1호 놀이터), ‘작전을 시작하~지’ (2호 놀이터)를 잇는 3호 놀이터 이름도 다양하게 제안했다.

‘붕어빵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놀이터가 다음달 중순 또 하나 만들어진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내건 순천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기적의 놀이터’ 얘기다.

◇모두 달라... 고정관념 깬 놀이터=순천시 서면 강정수변공원에 들어서서 ‘3호 기적의 놀이터’도 1·2호 기적의 놀이터처럼 고정관념을 깬 혁신적 ‘놀이터’로 만들어지고 있다.

놀이터별로 차별화도 두드러진다.

우선, 3호 놀이터(7750㎡)는 1호인 ‘영풍밭’ (3000㎡), 2호 ‘작전을 시작하~지’ (5000㎡)보다 크다. 1·2호보다 규모가 큰 만큼 유아부터 초·중·고교생까지 한데 어울릴 수 있도록 ‘통합형’ 놀이터로 꾸며진 게 눈길을 끈다.

놀이기구도 세대별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짚

## 순천 3호 놀이터 내달 중순 준공 30m 짚라인·그물놀이터 등 도전·모험정신 기를 시설 다채 어린이들 80명 체험 “신나요”



1호 놀이터의 땅굴 슬라이드.

라인, 그물놀이터, 다인그네, 유아용 밸런스바이크 등이 설치됐다.

‘영풍밭’의 경우 가공하지 않은 자연 소재인 돌(바위), 흙, 통나무 등을 주 재료로 활용하고 시냇물, 잔디, 언덕, 동굴, 나무 그루터기 등도 자연의 생태처럼 자연스럽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작전을 시작하~지’는 모험심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연소재 대신, 스페이스 네트, 워터 슬라이드, 잔디 미끄럼틀, 바구니 그네 등 어린이의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를 수 있는 놀이시설로 꾸며졌다는 점이 다르다.

각 놀이터별 랜드마크 격인 놀이기구를 즐기는 재미도 쏠쏠하다.

1호는 자연 소재로 만든 땅굴 슬라이드(길이 21m)와 출렁다리(8m)가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2호 놀이터의 대표작은 10m 높이의 자이언트 스페이스 네트다. 에펠탑처럼 하늘로 쭉 뻗은 자이언트 네트 위를 오르내리는 아이들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소형 네트는 5살부터 초등학교 2학년 까지, 10m 높이의 대형 네트는 중학교 3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3호 놀이터는 복합 스페이스네트(가로 23m·세로 23m), 짚라인(길이 30m), 밸런스 바이크장(길이 120m) 등이 꼽힌다. 놀이터를 미리 체험해본 어린이 감리단도 온종일 3개 놀이기구를 떠나지 않았을 정도다.

◇모두 같아... 아이들 시각으로 만든 놀이터=놀이터 주인인 어린이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건 모든 놀이터에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기적의 놀이터’ 대상지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부모, 주민들이 참여해 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감리단으로 참여해 놀이기구를 꼼꼼하게 점검, 개선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순천시는 1·2호와 마찬가지로 3호 놀이터 제작에 앞서 ‘어린이 디자이너 스쿨’을 열고 미리 놀이터를 만들어 볼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한 감리단 운영과 놀이터 이름을 직접 짓는 점도 공통점이다.

이날도 어린이 감리단은 직접 체험하고 개선할 사항들을 발표하고 밸런스바이크 높이 조절, 복합스페이스네트의 그물 간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반영을 약속받았다.

기적의 놀이터는 그물놀이터, 짚라인, 밸런스바이크장, 다인그네, 동굴 등에 대한 어린이 의견을 반영한 뒤 다음달 중순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는 ‘제 4호’는 삼산동 엽동호수공원에 ‘4호’를 조성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총 10곳의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해 아이들에게 행복한 이동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 따뜻하게 기다리세요... 버스승강장 55곳에 발열의자

버스 이용객들을 위해 승강장에 발열 의자가 설치됐다. <사진>

순천시는 겨울철,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승강장 이용객들을 위해 ‘따뜻한 발열의자’를 순천역 버스승강장 등 55개소에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열의자는 탄소섬유로 제작, 누전·감전의 우려가 없는데다, 평균 온도 30도를 유지하면서도 일반 발열제품에 견줘 전기를 25% 절감할 수 있고 원적외선 방출로 발열성은 뛰어난 게 특징이다.

버스 운행시간인 새벽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한다.

순천시는 또 방풍 바람막이가 없는 승강장 37개소에 대해서도 비닐 바람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교통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순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다양성 영화 3편 상영



순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은 다양성 영화 3편을 오는 29일, 30일, 다음달 1일 상영한다.

‘7번째 내가 죽던 날’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이자 아마존닷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로린 울리머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주인공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날이 반복되는 것을 깨닫고 내일로 가려고 하는 타임루프 판타지 장르다. 29일 오후 7시에 상영한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 수상작이자 세계 23개 주요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30일 관람할 수 있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는 일본에서 7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1일 상영된다. 과로사 직전까지 몰린 ‘다카시’와 자신을 구해준 수상한 동창생 ‘아마모토’의 유쾌한 만남을 다루고 있다.

두드림 영화관은 매주 첫째·둘째 토요일 오후 3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어린이 극장’, 셋째·넷째 토요일 오후 3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극장 마실’, 매월 마지막 주 수·목·금 오후 7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두드림 상영회’로 나눠 운영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는 일본에서 7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1일 상영된다.

과로사 직전까지 몰린 ‘다카시’와 자신을 구해준 수상한 동창생 ‘아마모토’의 유쾌한 만남을 다루고 있다.

두드림 영화관은 매주 첫째·둘째 토요일 오후 3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어린이 극장’, 셋째·넷째 토요일 오후 3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극장 마실’, 매월 마지막 주 수·목·금 오후 7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두드림 상영회’로 나눠 운영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수험생 위로 다음달 6일까지 ‘휴(休)&락(樂)’ 행사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수험생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다.

순천시는 다음달 6일까지 원도심 내 4개 고교 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휴(休)&락(樂)’ 행사를 연다.

행사는 고3 학생들에게 도시농업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 잠시나마 쉬(休)와 즐거움(樂)을 느끼면서 도시농업의 이해와 가치를 확산시키는 취지로 기획됐다.

체험행사는 학교당 5학년 150여명을 대상으로 식물과 꽃을 활용한 나만의 화분 만들기, 천연재료를 활용한 쿠키클레이, 보존화를 이용한 소품 만들기 등으로 이뤄져 있다.

순천시는 운영중인 해룡면 신대리 도시농업공



지난 27일 열린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휴(休)&락(樂)’ 행사에서 고교생들이 ‘나만의 화분 만들기’에 참여, 화분을 만들고 있다. <순천시 제공>

원과 연향텃밭, 조레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놓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